

대불정수능엄경 大佛頂首楞嚴經

대세지보살염불원통장

大勢至菩薩念佛圓通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염불하면,

현재나 앞으로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 가는 게 멀지 않으므로,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게 된다.

마치 향 만드는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과 같으니...

개경계 開經偈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뵈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어,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지이다.

대세지보살염불원통장

大 勢 至 菩 薩 念 佛 圓 通 章

대세지법왕자(大勢至法王子)가 그의 도반 52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頂禮)하고 말씀드리기를,

“제가 과거를 생각[憶]해보니, 옛적 항하사 겁(劫)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명호를 무량광(無量光)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두 분의 여래(如來)가 일 겁씩 계속하여 나오시고, 그 최후의 부처님 이름은 초일월광(超日月光)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저에게 이렇게 염불삼매(念佛三昧)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로지 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오로지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게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생각[憶]하여, 두 사람의 생각[意念]이 깊어지면, 이 생(生)에서 저 생에 이르도록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시방의 여래(如來)가 중생을 가엽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듯하다.

만약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도망간다면,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한들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한다면, 모자(母子)는 여러 생(生)을 지내면서도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염불[憶佛 念佛]하면, 현재나 앞으로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 가는 게 멀지 않으므로,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게 된다.

마치 향 만드는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이름하여 향광엄장(香光嚴藏)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인지(因地)에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인(無生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거두어 [攝] 서방정토에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圓通)을 물으시니, 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육근(六根)을 모두 거두어 정념(淨念)이 서로 이어져서 삼마지(三摩地)를 얻는 염불이 제일입니다.”

